일본 M&A 시장 동향과 시사점

□ 지난해 이후 일본 M&A 시장은 경기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 거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해외기업간 M&A가 크게 증가

□ 2017년부터 2018년 1/4분기까지 규모면에서 상위 10개 M&A 거래는 모두 해외기업간 M&A이며 이중 In-Out거래는 8개로 나타나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반영

□ 일본 M&A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 재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지난해 일본 M&A 시장은 경기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 거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해외기업간 M&A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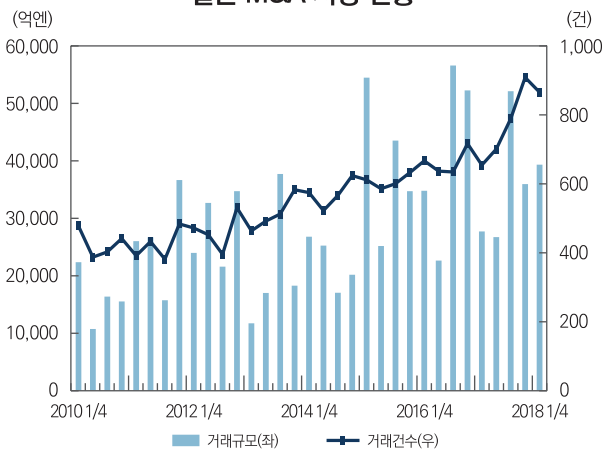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거래건수는 865건, 거래규모는 3조 9,286억엔으로 전년대비 거래건수 32.3%, 거래규모 33.0% 증가

- 전분기대비 거래건수 4.7% 감소, 거래규모 9.3% 증가하였으며 거래건수는 2017년 3,050건으로 12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M&A시장이 정체되어 2011년 1,687건까지 감소하였으나 2012년 반등한 이후 6년 연속 증가세

— 해외기업간 M&A 거래건수는 221건, 거래규모는 3조 1,035억엔으로 전체거래 대비 7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을 통합하는 형태인 In-Out 거래가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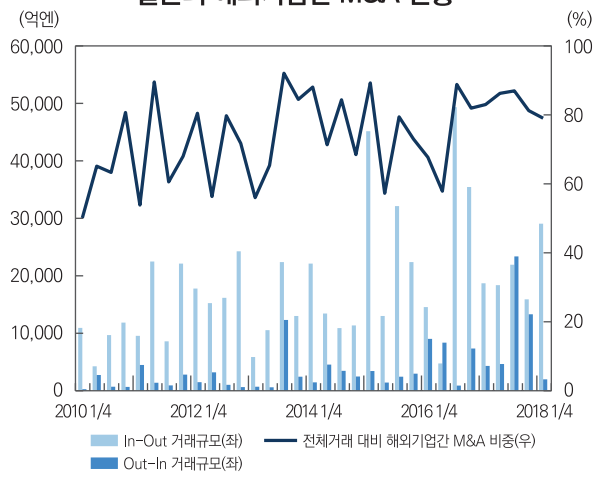
- In-Out 거래의 거래건수는 165건, 거래규모는 2조 9,062억엔으로 전년대비 거래건수는 10.0%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상승세 및 최대건수 기록,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55.7% 증가
- Out-In 거래의 거래건수는 56건, 거래규모는 1,937억엔으로 전년대비 거래건수는 60.0%, 거래규모는 54.1% 감소

일본 M&A 시장 현황



자료 : RECOF

일본의 해외기업간 M&A 현황



자료 : RECOF

□ **2017년부터 2018년 1/4분기까지 상위 10개 M&A 거래의 공시가치는 6조 6,367엔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38.4%를 차지하는데 모두 해외기업간 M&A 거래로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반영**

— 최대거래는 베인캐피탈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도시바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의 인수로 2조엔의 규모

— 2위 거래는 소프트뱅크의 우버테크놀로지 인수로 공시가치는 8,673억엔으로 우버지분의 15%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됨

— 그 외 주요거래로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 제약의 미국 아리아드 파카슈티컬스 인수로 6,278억엔의 규모

• 2018년 5월 8일 다케다 제약은 아일랜드 다국적 제약회사 샤이어사에게 현금과 신주를 배분하는 형태로 7조엔에 인수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일본기업의 역대 M&A 사상 최대규모

— 상위 10개 거래 모두 해외기업간 M&A이며 이중 In-Out거래가 8개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전략 강화의 현상을 암시

최근 상위 10개 M&A 거래목록

(단위: 억엔)

공시일	인수기업명 (국가/업종)	인수대상기업명 (국가/업종)	공시가치	거래방법	거래유형
2017.09.28	베인캐피탈 컨소시엄 (미국/기타 금융)	도시바 메모리 (일본/전기)	20,000	인수	Out-In
2018.01.01	소프트뱅크 그룹 (일본/통신·방송)	우버테크놀로지 (미국/소프트웨어)	8,673	자본제휴	In-Out
2018.02.01	후지필름홀딩스 (일본/화학)	제록스 (미국/전기)	6,659	인수	In-Out
2017.01.10	다케다 제약 (일본/의약품)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 (미국/의약품)	6,278	인수	In-Out
2017.05.01	소프트뱅크 그룹 (일본/통신·방송)	Xiaoju Kuaizhi Inc. (중국/소프트웨어)	5,500	출자확대	In-Out
2017.12.27	미츠비시UFJ은행 (일본/은행)	다나몬 은행 (인도네시아/은행)	4,945	인수	In-Out
2017.12.22	소프트뱅크 그룹 (일본/통신·방송)	디디추싱 (중국/소프트웨어)	4,526	출자확대	In-Out
2017.02.16	소프트뱅크 그룹 (일본/통신·방송)	Fortress Investment Group (미국/기타 금융)	3,729	인수	In-Out
2017.04.07	7-Eleven Inc. (일본/유통)	Sunoco LP (미국/유통)	3,660	사업양도	In-Out
2018.01.18	Baupost Group LLC (캐나다/사모)	도시바 미국 원전 사업부문 (일본/전기)	2,397	인수	Out-In

주 : 1) 발표일 기준, 그룹 내 M&A 및 부동산 거래 제외
2) 인수: 주식취득, 증자인수, 주식교환 등에 의해 50% 이상의 주식취득, MBO 등 포함
사업양도: 회사의 자산, 직원, 상권 등의 양도·양수, 기존 사업의 통합을 포함
자본제휴: 인수와 같은 방법으로 50% 이하의 주식취득
출자확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50% 이하의 추가 취득

자료: Bloomberg, RECOF

□ 최근 일본 M&A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 재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997년 독점금지법의 개정, 1999년 주식이전·교환제도, 2001년 회사분할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지주회사 설립의 촉진, 2007년 회사법 개정 등 조직의 유연화를 실현한 결과 M&A 시장이 확대

- 내부적으로는 수익원의 성숙·포화상태의 지속과 인구감소에 따른 확장기회의 한계로 성장목표 달성 및 내부사업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증가
- 외부적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하락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M&A 장려정책이 뒷받침

— 과거 대기업 위주였으나 현재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M&A 진출도 활발하며 업종의 다양화도 실현

- 2006년 당시에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업, 통신 등의 안건이 초대형 거래로 부각

-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매출 500억엔 미만 기업의 해외 M&A는 2017년 74건 성사되었으며 2013년 3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

— 일본 내 시장의 축소, 신흥시장으로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해외 M&A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업계재편과 사업재생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M&A로 성장

- 경제산업성은 M&A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의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적용해 인수대상기업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인수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정비[2)]
- 모회사의 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하거나 현물출자에 의한 분할의 경우(spin-off)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 과세 및 분할법인 주주의 간주배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최근의 세제개정[3)]으로 비핵심부문을 분리(carve out)하여 주요사업에 집중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 2016년 11월 닛산자동차의 배터리 사업부문 매각, 2017년 4월 히타치의 반도체장비사업 매각, 2017년 9월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 건이 이에 해당

연구원 여밀림

1) 매출액 기준으로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부, 2부, 마더스, JASDAQ 기업을 포함

2)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 구조조정개획(산업경쟁력 강화법 25조 1항, 2조 12항)의 인증을 받아야함. 미래투자 전략 2017에 속한 5개의 전략분야(이동혁명의 실현, 공급망의 차세대화, FinTech, 건강수명의 연장, 쾌적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구축) 관련 인수로 새로운 사업활동을 통한 핵심사업의 강화, 가치창출 기반 구축사업을 할 경우 적용(일본 경제산업성, 2018.4.1,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안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3) 일본 경제산업성, 2017.12.22, 2017년도 경제산업관계 세제개정, 개정전에는 타인에 의한 지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독립할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과세와 분할 법인주주에 간주배당 및 양도차익 과세가 발생